

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2020년 올해 최대의 화제는 단연 나훈아이다. 지난 9월 23일 방송된 '2020 한가위 대기륙 대한민국 아케인 나훈아' 콘서트에서 그는 2시간 30분 동안 약 30곡의 노래를 불러 국민들을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다. 이날 시청률은 40%라고도 하고 29%라고도 하는데, 29%라고만 해도 놀라운 시청률이다. 사람들은 왜 이토록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것일까?
그가 부른 노래 중에서 가장 많은 갈채를 받은 것은 '테스 형'이다. 그는 직접 가사를 쓰고 작곡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이른바 '싱어송라이터'로 알려져 있다. 이 노래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데에는 그의 가창력에 기인한 바가 크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가 쓴 노랫말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어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로 시작되는 이 노래의 주제는 '아픔'이다. 이어지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에서 이 아픔의 정체가 드러난다. 그의 아픔

아, 테스 형!

은 세상에 대한 아픔이고 사랑에 대한 아픔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 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 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에서 이 아픔은 세월에 대한 아픔까지 품는다.
그는 세상이 아프고 사랑이 아프고 세월이 아픈 이유를 '테스 형'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흔히 대중가요가 개인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데 그치고 마는데 나훈아는 개인의 정서를 넘어서 어지러운 세상, 덧없는 인생에 대한 깊은 고뇌를 노랫말 속에 담았다. 70세가 넘는 노인에게서 풍기는 연륜의 깊이를 느낄 수 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불렀을 때보다 훨씬 성숙하고 무르익은 나훈아를 우리는 만나게 된다.
붓글씨도 쓰고 유화(油畵)도 그린다 그는 확실히 예술가적 재능을 지니고 있다. '테스 형'의 가사는 잘 짜인 한 편의 시와 같다. 아픔-세상-사랑-세월로 이어지는 가사의 맥락도 그렇거니와 "그저 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라든가 "나 자신을 알라며 특 내뽀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 형"과 같은 구절 또한 반짝이는 훌륭한 시구(詩句)라 할 수 있다. '아, 테스 형!'이란 반복구(反復句)에서도 그의 시적 재능이 드러나 있다. '아, 공자 형!' '아, 퇴계 형!'이라 했으면 얼마나 어색했을까?
우리가 그의 노래에 열광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수로서의 실력 때문일 것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자기

만의 삶의 자세와 철저한 장인정신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1996년 일본 오사카 공연 말미에서 '꽤지나칭칭나네' 후렴구 앞에 '독도는 우리 땅. 누가 뭐래도 우리 땅'이라는 노랫말을 넣어서 열창했다고 한다. 한일 관계가 날카로웠던 때 일본 땅에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은 여간한 배짱과 신념과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당연히 극우 단체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지만 '죽이려면 죽여 보라'며 버텼다고 한다.
그는 정부가 주는 훈장을 사양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이랬다. "세월의 무게도 무겁지만 가수라는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훈장의 무게까지 제가 어떻게 견디니까?" 훈장을 사양한 것도 예상치 않은 일이지만 '가수'라는 무게를 엄청나게 무겁게 여겼다는 말에서 노래에 대한 그의 애정 또한 예상치 못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삼성 이경희 회장의 생일잔치에서 노래를 불러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 1992년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의 국회의원 공천 제의를 거절한 것, 2020년 2월 대구의 코로나 방역을 위해 3억 원을 기부한 것 등 일련의 사건만 봐도 그가 걸어 온 삶의 궤적이 어떠한지 알 만하다.
더욱이 이번 KBS 공연에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니 그가 정말 예상치 않은 인물인 것만은 분명하다. 7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가장력을 자랑하는, 노래하는 시인 나훈아 씨의 건승을 기원한다.

경제이야기

'빠빠로 데이' 단상



이정
한국은행 인재개발원 교수

매년 11월 11일은 빠빠로 데이(day)다. 연인들은 초콜렛을 주고 받으며 사랑을 확인한다. 소개팅에 실패한 솔로들은 그저 부러울 뿐이다.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물 알리바바는 매년 이 불쌍한 솔로들에게 대대적인 온라인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듬하여 '광군제'. 2009년 시작하여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금년에도 11월 11일 하루에만 83조 원 어치를 팔아 치웠다. 기아자동차 연간 매출의 두 배에 이르는 천문학적 성장세다.
알리바바의 급성장을 바라보며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알리바바의 최대 주주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다. 손정의의 지분은 34%인 반면 창업주인 마윈의 지분은 8%에 불과하다. 재주는 마윈이 부리고 돈은 손정의가 가져가는 꼴이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로 평가받는 이 투자가 결정되는 시간은 불과 5분이었다고 한다.
알리바바의 창업 초창기인 1999년, 직원 35명에 불과하고 변변한 사업 모델도 없었던 창업주 마윈은 손정

의에게 투자를 요청하고, 투자 제의 5분 만에 손정의는 투자를 결정한다. 훗날 손정의는 "당시 마윈의 비즈니스 모델은 별 볼일 없었지만 그의 빛나고 강한 눈, 말하는 스타일과 카리스마는 중국 청년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투자 결정 이유를 밝혔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업 모델도 중요하지만, 투자자를 감동시키는 발표(presentation) 형식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보여주는 일화다.
삼국지에서 유비 삼형제(유비·관우·장비)는 도원결의(桃園結義)를 통하여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겠다고 맹세하지만, 정작 빈털터리였다. 그런데 마을을 지나가던 재력가 상인인 장세평과 소장은 유비의 진정성 있고 겸손하며 조리 있는 말솜씨에 반해, 말 50필과 금은 500냥 등을 제공한다. 우리에게 익숙한 유비의 쌍고검, 관우의 청룡언월도, 장비의 장팔사모장은 이 첫 종자돈 덕택에 비로소 탄생하게 된다. 유비의 멋진 언변이 훗날 난세의 영웅을 만든 스타트업 투자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정주영이 울산 미포조선 건설을 위해 해외 자금을 유치한 일화는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다. 현대는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그룹의 명운을 건 조선소를 건설하기로 한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으니 조선소 건립 자금의 해외 유치가 불가피했다. 런던의 투자자는 정주영이 아무리 면밀한 사업 계획서와 정부 보증서를 보여 줘도 이를 없는 변방

가난한 나라의 사업가를 믿지 않았다.
정주영의 마지막 승부수는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는 500원짜리 지폐였다. "이 지폐에 그려진 배는, 거북선이라는 철로 만든 함선인데, 대한민국은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거북선을 만들어냈고, 일본의 전함을 꺾어버린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이 돈 안에 담겨있으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의 투자자는 정주영의 영동한 아이디어에 마음이 흔들렸다.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세계 최강 조선 산업의 밑거름이 된 종자돈은 사업 계획서나 정부 보증도 아닌 '500원짜리 지폐'였던 것이다.
광주·전남 지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산업과 과정에서 굴지의 제조 업체가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 수도권과 격지인데다 서울-부산 간 개발 축에서도 한 발짝 벗어난 지리적 불리함 때문에 투자 유치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입지적 핸디캡 때문에 사업 계획서의 경제성이나 효율성만으로는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를 만들 수 없다. 투자 유치가 어려울수록 당연히 사업 모델의 혁신성을 높여야 하겠지만, 사업 내용을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고객 감동형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알리바바 마윈의 강렬한 눈빛, 유비의 진정성 있는 말솜씨, 정주영의 500원짜리 지폐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사업 모델 자체보다 발표 형식의 기발함이 때로는 유효함을 역설하고 있다.

기고

군 공항 이전 문제 '빅딜'로 해결해야



유영태
조선대학교 기계시스템
미래자동차 공학부 교수

역대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으로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인 강원국 작가는 "갈등을 회피하면 변화와 혁신도 어렵다.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수용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의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런 갈등을 잘 관리하면 변화는 물론, 구성원 간의 관계도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변화 이전보다 더 돈독해지고 신뢰가 굳건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을 외면하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계기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발전을 위한 변화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뜻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성장과 발전은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란 걸 우리는 잘 안다. 갈등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해관계와 신뢰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공항 이전 문제로 표면화되고 있는 광주·전남의 갈등도 이러한 속사정을 반영하고 있다. 상호간 신

뢰 구축과 합의의 위한 노력보다는 각자의 입장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갈등 해결의 시작점은 이해 당사자 간 모두에게 어떠한 이익이 발생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신뢰 구축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 지역은 인구 감소와 주민 이탈로 지방 소멸 위기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 놓여있어 혁신적 변화가 절실하다. 혁신적인 변화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기 위하여 위험할 정도로 과감하게 양보해야 하고 주민들의 대대적인 교류가 활발해야 가능하다. 미래의 번영을 위해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함께 노력하는 과감한 협력이 '빅딜' (big deal)이다.
우리가 풀어야 할 공항 이전과 관련된 갈등도 마찬가지다. 갈등의 핵심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기뻐 비용 상실이란 문제가 깔려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빅딜 제안인 '광주·전남 이익 공유 도시'는 매우 의미가 있다.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유동 인구의 유입으로 관광객과 수출입에 대한 수월성이 보장된다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은 분명 향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안의 경우 이미 국제공항이 만들어져 있다. 공항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국내선이 함께 운영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협상과정에서 소음 문제로 민간항공 이전만 수용하고 싶다는 전남의

의견도 일견 이해는 간다. 그러나 혁신적인 발전으로 미래의 안정적인 삶의 보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고 때로는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혁신이 어렵고 발전을 위한 변화가 어렵다.
무안에 군 공항과 민간 항공을 함께 운영하는 대규모 공항이 마련되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서남권 관문 공항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서남권 관문 공항을 중심으로 수출입 물자가 광주·전남 지역에 신속하게 공급되면서 산업 경쟁력을 견인할 것이고, 남해안 다도해를 연결하는 관광 사업에 대한 새로운 활로 마련으로 지방 경제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광주 공항 이전 부지에는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집적된 디지털 경제 시범 도시 구축도 가능하다.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시는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진화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광주·전남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살기 좋은 플랫폼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살기 좋은 지방의 시작에는 대규모 서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과 지자체의 과감하고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파격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수도권 집중화에 의한 지방 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빅딜로 광주·전남 경제 규모를 키워 균형을 잡는 것만이 지방도 살기 좋은 멋진 고장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社說

'헬기 사격 있었다' 전두환 유죄는 사필귀정

광주지법은 어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다. 전 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의 이날 선고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인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 상공을 날던 계엄군의 헬기가 시민들의 시위대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발포를 한 것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또한 전 씨와 그 일당인 신군부가 주장하는 '자위권 발동'의 논리 자체가 깨지게 됐다. 점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지상군의 발포와 달리 광주 상공에서 시민들을 향해 이뤄진 사격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우기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헬기사격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 군 지휘 체계상 상부로부터의 허가가 필

요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날 재판의 1심 선고를 맡은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경훈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강한 어조로 전 씨에게 훈계했다. "지금이라도 5·18민주화운동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고 요지를 밝히기 시작하자 전 씨는 이내 꾸벅거리며 조는 모습을 보였더니 판사의 훈계를 제대로 들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출발하면서 서울 자택 앞에 모인 시위대를 향해 "말조심해 이놈아"라고 외치기도 했더니 그의 후안무치(厚顏無恥)에 차가 떨린다.
이번 판결로 헬기 사격 여부를 놓고 벌였던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전 씨에 대한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은 아쉽다. 이제 518 진상 규명부가 발표명령자 색출 등을 통해 확실한 단죄명으로써 전 씨의 뻔뻔스러운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이다.

지역 차별 초래하는 '에타' 제도 전면 개선을

지난 20여 년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에타) 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개발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호남 등 나머지 지역은 소외되면서 국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방이 기획재정부 공개자료를 토대로 에타 조사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1년간 대형 프로젝트 추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국적으로 280조 3231억 원(618건) 규모의 사업이 에타를 통과(또는 면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정부 부처 직접사업 등(33조 163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86조 5914억 원(142건)으로 35.0%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영남권이 65조 4966억 원(175건)으로 26.5%를 차지한 반면 호남권은 36조 2543억 원(104건)으로 전체의 14.7%에 그쳤다.

광주·전남만 보면 26조 761억 원(70건) 규모의 사업이 에타 문턱을 넘었는데 역대 정부에 따라 편차가 컸다. 김대중 정부에서 10조 2205억 원으로 23.6%를 차지해 최대치를 보였지만 노무현 정부에서는 겨우 10%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7%, 박근혜 정부에선 2.5%로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에타 제도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오락가락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호남의 경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의 차별이 그렇지 않아도 낙후한 지역을 더욱 쇠락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고 낙후 지역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타 제도의 전면 개선이 절실하다.

無等鼓

"대니먼 미국 땅에 십 년 넘어 살면서 고국 생각 그리워/ 아침저녁 식사 때면 런치 에타 비후스텍 맛 좋다고 자랑 쳐도/ 우리나라 배추김치 깎두기만 못하더라..." 한 류 원조 걸그룹 '김 시스터즈'(The Kim Sisters)가 1970년 발표한 '김치 깎두기'의 노랫말이다.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이난영의 오빠인 작곡가 이봉룡이 만든 이 노래에는, 10대의 나이에 도미(渡美)해 낯선 이국땅에서 겪었을 그녀들의 애환이 어려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리 식탁이 영성하다해도 김치와 깎두기는 기본 밑반찬이다.
요즘 주변에서 '김장 김치 중추국'이라는 인사를 가끔 받곤 한다. 김 장철이다 보니 의례적으로 묻는 것이겠지만, 아직 김장을 안 했으면 자기의 김장 김치 몇 포기 주겠다는 우회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김치는 지방마다 그리고 집안마다 양념 비법이 모두 달라서 그 맛이 천차만별이다. 그래서 김장철이면 여러 집의 김장 김치를 비교해 가며 맛볼 수 있는 것도 소소한 즐거움이다.
음식문화 평론가 윤덕노의 '음식으로 읽는 한국생활사'에 따르면 조선 초기만

해도 배추김치보다는 무김치가 중심이었다. 배추김치 이전에는 동치미·나박김치·얼갈이김치를 주로 담았는데, 통배추는 조선 중·후반기에야 등장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배양이를 하면 김치국을 마시라 할 만큼 김치는 반찬뿐만 아니라 치료 약의 역할도 톡톡히 했다.
최근 중국이 쓰촨(四川)성 절임 채소인 '파오차이'(泡菜) 제조법을 국제 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했다. 이를 두고 중국 김치가 국제 표준이 됐다는 등 말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한다. 이는 중국의 아전인수식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치 중추국'인 우리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김치 산업과 김치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이 이어져야 할 것 같다.
세계 음식문화가 퓨전화되고 있지만 한국인의 김치 사랑은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김 시스터즈'가 부른 '김치 깎두기'의 노랫말은 이렇게 이어진다. "코리아의 천하 명물 김치 깎두기/ 지나 깨나 잊지 못할 김치 깎두기."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김치 중추국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